

# 美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이 유 진(통일사업부, yjrhee@kdb.co.kr)

-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우선주의, 외교안보 내각 및 보좌진의 강경성향, 트럼프의 사업·협상가 성향 등의 영향을 받음
- ◆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나, 북·미간 갈등이 극대화되고 북핵문제 관련 미국민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화를 통한 협상도 가능

##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n First) 기조下에 강경하고 단호한 성향의 외교안보 내각 구성

- (성향과 특징) 초강경 안보성향으로 국제주의적 시각 견비
  - 행정부의 핵심참모는 대기업 CEO, 군출신 등으로 공직경험이 적어 국정 운영 방향 예측이 어려움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구성

구분	플린(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폼페오(Mike Pompeo) 중앙정보국(CIA) 국장
				
주요 경력	· 前 국방정보국장 · 육군중장	·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 CEO	· 4성급 해군 장군 (44년 군복무)	· 퇴역군인 · 공화당, 4선 하원의원
성향	· 강경파	· 친러 성향	· 초강경파	· 보수파
특징	· 극단적 이슬람-북한 연계성 초점	· 러시아와 비즈니스 관계 유지	· 훌륭한 전략가 · 민주당의 지지기반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에 비판적

자료 : 주요 외신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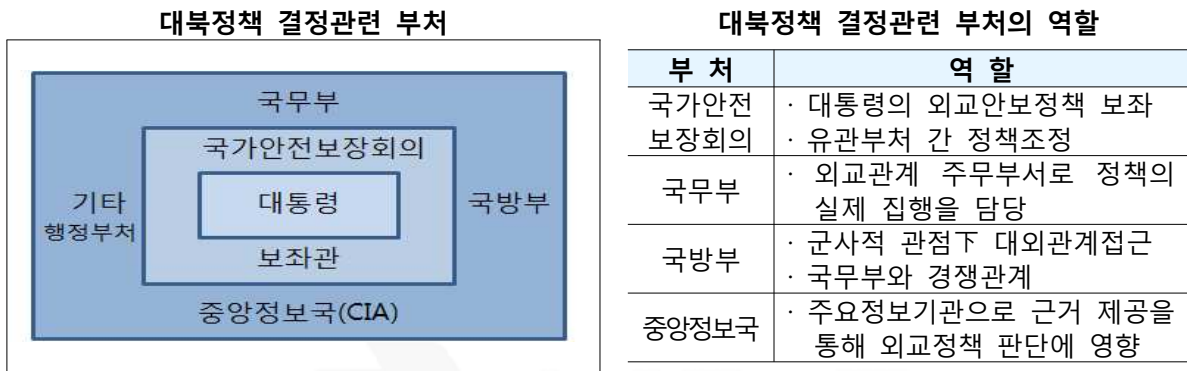
- (핵심참모발언) 북핵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재강화(intensified sanctions), 선제적 타격(preemption) 등 강경발언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구성원의 주요 발언

내각 구성원	주요 발언	
플린(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대북인식	북한은 극단적 테러리스트(radical terrorist)와 동맹국이며, 쿠바,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적이다 (U.S. enemies)이다 - <i>Mark Levin Show</i> ('16. 7)
	대북입장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응하겠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대북인식	이란, 북한과 같은 "적들"은 중대한 grave 위협이 되고 있다 ('17. 1)
	대북입장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심각한 위협으로 군사적 대응도 선택지 중 하나이다 ('17. 1)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대북인식	북한은 한반도를 불안(volatile)하게 만든다 ('17. 1) 북한 리더십은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을 지속한다 ('17. 1)
	대북입장	대북 선제타격(necessary force) 등도 논의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17. 1) 미국은 핵사용에 압도적(effective & overwhelming) 대응을 할 것이다 ('17.2)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	대북인식	미국에 임박한 위협은 테러와 핵무기를 가진 북·중·러이다 ('17. 1)
	대북입장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등 사이버 분야에 집중하겠다 ('17. 1)

□ **美 대북정책은 관련 부처와 백악관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임**

- 美 대북정책은 1차적으로 CIA 정보를 바탕으로 주무부처 작성, 2차적으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부처간 논의과정을 거침
  -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례적으로 배넌(Steve Bannon)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NSC 수석회의(당연직)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대북정책결정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됨
  - \*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극우성향으로 극우 언론 '브레이크바트뉴스' 대표를 역임, 인종주의, 극우주의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최종적인 대북정책 결정은 NSC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트럼프의 사업가 및 협상가 성향이 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는 이익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사업가 스타일이므로, 즉흥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며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전망**

- 강경 대북정책
  - 강경성향의 내각 구성원과 극우성향의 백악관 비서관은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강경한 대북정책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美 행정부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볼 때 강경한 대북정책 입안에 유리
  - \* 북한은 ICBM 시험발사 징후를 보이고 있고,美的회에서는 북한의 정권교체 등이 논의됨
- 협상 가능성 및 유연한 대응
  - 트럼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북·미간 갈등이 극대화되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美 국민의 우려가 최고조로 달할 때 전략적으로 대화 등을 통한 북미협상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음
  -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NSC에 참여시킨 것은 북핵 위협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미행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전망